



■ 우주인 앞으로 무엇을 하나

2007년 1월 15일~26일
최종 후보 2명 러시아 의학박사

2월 1일~2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전교육

3월 1일~31일
러시아 가가린 훈련센터 사전교육

4월 8일부터
1년간 러시아 가가린 센터 훈련

10월, 11월
우주인 1명 최종 선발

2008년 4월 D-5
탐승준비(발사 5일 전부터 외부와 격리하고 체력훈련)

D데이
소유즈호 발사 후 고도 220km까지 상승해 이틀동안 국제우주정거장 궤도를 순회하다 도킹

D+2
국제우주정거장 8일간 머무르며 과학실험 등 임무 수행

D+10
소유즈호 타고 키지올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근처 초원 착륙, 2일간 러시아 병원 입원 지구 적응, 귀국

광주·전남 지지율 '魔의 10% 벽' 넘는 한나라

정부 失政 반사효과...與 바짝 추격

■ 역대 대선 한나라 지지율

13대 7.3%
14대 3.5%
15대 2.6%
16대 4.2%

광주·전남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민심 변화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정당-민자당을 계승해 온 한나라당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1987년 13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황색 돌풍' 이후 1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자릿 수 지지율은 내년 대선에서 10년만의 정권탈환을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고지로 여겨져왔다.

남성·젊은층서 지지율 높아
대선 1년 앞 민심 변화 촉각

광주일보가 지난 22일 한국갤럽에 의뢰,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p) 결과 한나라당은 13.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광주·전남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31.4%에는 뒤지지만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열린우리당(16.9%)과의 격차를 불과 3.6%p로 좁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민주노동당(7.9%)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는 점도 주시해볼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광주·전남지역에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은 데 이어, 1988년 총선에서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황색 돌풍'을 일으킨 이후 20년 가까이 한자리 숫자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었다.

1987년 13대 대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7.3%(14

만2천172표)를 득표했고, 1992년 14대 대선에서는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3.5%(6만7천864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997년 15대 대선에서 2.6%(5만4천828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4.2%(7만9천943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같은 지지도는 올해 치러진 지난 5·31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올 지방선거에서는 4~5%대의 정당득표율로 광주·전남지역 410개의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의석 중 단 한 자리도 건지지 못했다. 국회의원 역시 15대 총선 이후에는 비례대표를 포함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4년 9월 광주일보-한백리서치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1.9%에 불과했다. 또한 광주일보와 KBC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 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7회에 걸쳐

실시한 연속 여론조사에서도 3.0~4.8%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이같은 성적표에 비추어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얻은 두 자릿수 지지율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11.6%)보다 남성(15.1%), 연령별로는 19~29세의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19.7%)가 다른 층에 비해 높았다.

변화의 씨앗은 지난 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엿보였다. 당시 설철호 후보는 8.2%의 득표율로 16대와 17대 총선을 통틀어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참여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을 1년 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이렇다할 유력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표심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온 '호남개안기'의 진정성과 당 정체성에 대해 지역민들은 여전히 의심스런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광천동 소녀
한국 첫 우주인 됐다

이소연씨 최종 2인에 선정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으로서는 향후 한국 우주관련 연구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이공계 관심을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25일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두 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광주 출신 이소연(여·28·KAIST 바이오시스템학과 박사과정·광주시 서구 광천동)씨는 어렸을 적 TV에서 SF 영화를 보면서 우주인의 꿈을 키웠다. 이씨는 지난 4월 과학기술부 등의 '우주인 선발안내' 공고를 봤을 때,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꿈이 되살아났다. 학업도 제쳐놓고 선발에 응모한 이씨, 처음에는 300명 안에 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어느새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이라는 대업을 이뤄냈다.

이날 선발에 앞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가족들은 SBS 방송국으로 올라가, 딸의 선정 모습을 지켜봤다.

이씨는 광주 송원여중과 광주 과학고를 졸업한 뒤 현재 KAIST에 버 박사과정을 밟고있는 재원이다. 우주인으로 확정된 뒤 이씨는 "우연히 신문에 우주인 선발 관련 기사를 보고 어린 시절 꿈이 생각나서 우주인 공모에 지원했다"면서 "색시하고 멋진 우주인 박사로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파해 이공계 연구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선발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러시아 가가린(Gagarin) 우주센터에서의 훈련을 마친 직후인 지난 10일 광주에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우주로 가면 '블루마블'(Blue Marble·지구)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 사진으로는 수없이 봤지만, 감각한 우주 공간에서 직접 보면 제가 우주인이라는 것이 새삼 실감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구역상 광역시였지만

눈과 발을 바로 볼수 있는 광천동이 나의 삶의 원천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웃고 울면서 살아간 이웃사촌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침 1시간 가량 조깅을 하고, 30~40분씩 수영을 즐길 정도로 스포츠광이다.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단을 획득하기도 했다. 교내 마라톤 대회도 꼬박꼬박 참가했다. 시력은 오른쪽 0.6 왼쪽 1.2로 썩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우주인이 되겠다는 강한 열정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씨는 내년 한 해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생활하며, 2008년 러시아 우주왕복선 '소유즈'(Soyuz)호 탑승 여부 테스트를 받는다. 광주 시민들은 이날 SBS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정된 이씨가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살렸다"고 기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삼성종합기술원 인공지능 연구원

또 한명의 우주인 고 산씨

이소연씨와 함께 최초의 한국 우주인에 선발된 고산(30)씨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최고급 두뇌, 부산 출신인 고씨는 3살때 서울로 올라와 한영외국어고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서울대 수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에서 인지과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를 받았다.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다.

고교시절 전공인 중국어 회화실력이 출중한 고씨는 카루사에서 2년간 복무해 원어민과 의사소통이 원활할 정도로 영어에도 능통하다. 대학 시절 산악부, 축구부, 복싱부 등 운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체력을 키워왔다. 산악부에서는 2003~2004년 대장을 지내 리더 자질이 풍부하고 사고성도 뛰어나다. 2004년에는 전국

신인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동메달을 받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또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주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 익혀야 할 과학기술이 있더라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고씨는 2004년 여름 파키스탄 고원에 위치한 해발 7천 500m의 '무스타크 아타'를 등반한 경험이 극한 상황을 헤쳐가야 할 우주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가슴에 품어보았을 법한 우주인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드시 한국인의 명예를 드높일 우주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 씨는 "우주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한 뒤 우주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멈추지 않는 40년 진화 - 한국전화번호부의 역사입니다!

전화정보 서비스에서 인터넷 생활정보 서비스, 다방면과 분무는 지역정보 서비스까지 - 한방 입시 변화해온 지난 40년처럼 앞으로도 고객들 위한 성장된 행주치 일것입니다.

1. 전화 및 상호 전화번호부
- 전화 번호안내부, 업무전화번호부, 생활 전화번호부, 일반전화부

2. 소상공 전화번호부(LYP)
- 지역별(시/군/구) 소상공번호부

3. Superpage
- 온라인 114 및 112 서비스 등
www.superpage.co.kr

아이디어 공모전

KTD 전국전화번호부
080-577-1141